테라 돌풍… 출시 100일만에 1인당 2.4병 마셨다

〈성인〉

총 1억병 돌파… 초당 11.6병 판매
호주서 맥아 발효 100% 리얼탄산
하이트·맥스 시너지… 판매 5% ⬆
참이슬+테라 '테슬라' 인기 상승

하이트진로의 야심작, 맥주 신제품 '테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맥주사업 부문 반등을 예고했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100일을 맞은 테라의 판매량이 1억병을 돌파,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맥주 부문 판매량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신호다.

테라 판매는 6월 29일(출시 101일) 기준 누적판매 334만 상자(330ml 기준), 10,139만 병 판매를 달성했다. 이는 초당 11.6병 판매된 꼴로 국내 성인(20세 이상, 4204만명 기준) 1인당 2.4병 마신 양이다.

출시 39일 만에 100만상자 판매를 돌파하며 맥주 브랜드 중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한 테라는 이후 판매에 가속도가 붙으며 72일만에 200만 상자, 97일만에 300만상자 판매(6/25일 기준)를 기록, 100만 상자 판매속도가 약 1.4배 빨라졌다

하이트진로는 청정, 천연, 친환경 등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 맥아는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만 100%, 발효 공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리얼탄산 100%를 담은 청정라거-테라를 출시했다. 라거 특유의 청량감과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테라 출시로 인한 기존 맥주 브랜드의 잠식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흥 및 가정 시장의 전체 맥주 부문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테라와 함께 하이트, 맥스 등의 기존 브랜드가 시너지를 내며 올해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5% 상승했다. 2015년 이후 지속 하락하던 수치가 올해 상승 전환하며, 맥주 부문 턴어라운드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레귤러 맥주의 격전지인 유흥시장에서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6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5%나 상승했다. 2017년은 전년 대비 -23%, 2018년 전년 -21%를 기록했었다.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는 만큼 판매량은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추세라면 1년 판매 목표인 1600만상자 판매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초기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테라 생맥주를 출시, 여름 시장을 겨냥하며 성장의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필라이트로 시작돼 테라로 이어지는 맥주 시장 판도 변화와 국내 소주 1위 브랜드 참이슬과 신제품 진로 효과로 더욱 견고해진 소주 시장이 결합해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를 발판 삼아 국내 주류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성공신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더위 피해 다리 그늘 아래로 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아래 그늘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상청은 3일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고, 곳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미래유망 신산업 2027년까지 16.5만명 필요

현재 10.9만명, 부족률 3.7% 달해
'차세대 반도체 사업' 1146명 부족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에서 인력 부족률이 평균 3.7%에 달해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유망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등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현재 5개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9000명이며, 부족인력은 4183명(평균 부족률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서 10년 후인 2027년에는 약 5만6000명이 늘어난, 총 16만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조사는 2016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2016년), 지능형 로봇(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분야별로 차세대 반도체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은 578개사로 추정되며, 공정·장비 분야 및 10~1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38.2%)을 차지했다.

차세대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를 훨씬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거나 소모전력을 크게 개선한 반도체를 말한다.

차세대 반도체 사업의 현재 인원은 2만7297명에 부족인원은 1146명(부족률 3.8%)이며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부족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참여기업은 420개사로 추정되며, 소재·부품 분야 및 20~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36%)을 차지했다. 현재 인원은 1만3759명으로 부족 인원은 834명이며, 부족률은 5.5%로 나타났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응용기기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해상도·소비전력 등 성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형태인 디스플레이를 가리킨다.

이밖에 IoT가전(현재 인원 3만634명) 부족인원은 880명(부족률 2.8%)이고 AR·VR(4782명) 부족인원은 286명(5.4%)이며 첨단신소재(3만2101명) 부족인원은 1037명(부족률 3.1%)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가족 해체 부르는 '주거박탈' 개선"

〉〉 1면 '취약계층 빚…'서 계속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 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6월 소비자 물가 0.7% ⬆… 반년째 0% 대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1%를 밑돌았다. 소비 부진, 건강보험·무상급식·무상교복 등 복지확대, 전년 대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 0.8%로 낮아진 상승률은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월 0.7%를 나타냈다.

이런 연속 0%대 기록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

1~6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6%로, 2015년 1~6월(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한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작년 6월보다 1.8% 상승해 전체물가를 0.13%포인트 끌어올렸다. 생강(105.7%), 찹쌀(21.5%), 현미(20.8%) 등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고, 무(-28.8%), 고구마(-11.2%), 마늘(-8.4%) 등이 크게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전년 대비 보합이었다. 이 가운데 석유류는 3.2%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3%, 1.7% 하락했다. /연합뉴스

〉〉 1면 '위기를 기회로…'서 계속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 94% 日에 의존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 경량화 소재, 3D프린팅 소재 등에 사용된다.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생산의 90%를 차지한다. 한국은 전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의 93.7%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리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기술력 차이가 커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동진쎄미켐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리지스트 관련 기업이다. 그러나 동진쎄미켐은 삼성전자에 리지스트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확대하면 일본 소재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